

清福半日

咸錫泰

一年四季의 景物에 對한 感興을 나머지 考第하라면 四景의 風致가 다 각기 좋지 않은바 아니로되 그래도 嚴寒과 苦熱은 冬裘夏葛로도 오히려 괴로운때이니 春秋兩節을 居中の 上이라 하겠다.

其中에도 아무리 보와도 가을은 男性的이다. 春風이 麗人의 溫情이라 하면 秋月은 文士의 襟度라 할가 봄은 爭艷에 호르기 쉬우나 가을은 獨淸에 빠진다 하겠다. 一塵에도 染치 아니하는 長江의 淸빛은 澄澈을 天光으로 다루고 秋林의 맑은맛은 指端에 微雪을 드러나 보는것 같다.

벼 누르고 魚蟹 살지고 棗柿 붉고 달 밝고 日白霜靑에 楓丹菊黃하야 口味와 睡眠과 淸興을 들을대로 들으는 一年中에 가장 좋은때이니 이른바 得意秋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自古로 文章、英雄、佳人、才子들은 悲傷을 恨하였다. 宋玉의 悲秋賦로부터 李太白의 悲淸秋나 濟淵의 秋傷賦等은 그 뜻을 물으겠다. 넘치는 人生觀을 秋來木葉黃에 불리어 紅顏이 漸暮하고 白髮이 將至함을 情恨

한 觸物의 寓詞가 아늑가 歲去에 人頭白을 奚但秋日만에 限하리오 듣는것을 恨하랴면 一日一時가 새롭고 또 搖落蕭瑟한것을 悲傷하더면 風雪深冬을 어찌할가.

그리므로 潘岳의 秋興賦나 梁元帝의 秋德賦나 表淑의 秋晴賦도 없은바는 아니다. 人生一世를 어찌 草生一秋에 비치워 恨할바리오. 더욱 朝鮮은 沃野千里의 天府廣野는 없다 하더라도 錦繡江山을 자랑하는 農村國의 秋景으로서 一簫를 아니들수 없다.

요즘과 같이 日白風淸한 때에 한번 발거름을 郊外에 내놓면 山紫水明만이 秋景일뿐 아니라 鷄黍 향기로운 農村의 어기저기 唐紅苦草 말리는 붉은집웅과 雜草는 아워어도 호을로 살지고 香氣 높은 野菊을 아원 풀과 함께 묶어 걸머지고가는 樵童들의 風情이나 山寺에 尼僧이 野菊의 鬚까지를 함부로 모아잡아 佛壇에 고여놓은 모양은 아무리보아도 가을 朝鮮의 一幅畫題이다.

朝鮮의 가을氣候는 四時中에 特別히 오랜것도 우리가가 淸福이라 하겠다. 都市生活의 疲勞를 풀겸 每日曠日에 竹杖芒鞋로 訪山尋水에 一日의 消暢을 얻기로는 一年中에 第一 絶好한 氣候이다.

바로 지난 十月二十九日은 大空一碧한 日曠日이었다. 이날의 好晴을 타서 素筌孫在馨氏와 같이 옛날은 高陽郡城北

里上城北屯이요 지금은 京城府城北町에 新精舍를 落成한
尙虛李泰俊氏의 幽居를 叩하였다.

尙虛는 所幹이 있어서 外出할터이니 午後五時에 찾아달
라는 前날의 約束이 있으나 景趣에 파묻은 두사람의 일이라
두時間前에 城北洞池를 넘어 개를 끼고 물줄길을 찾았다.

稀罕한 旱災에 溪流가 涸竭된것은 無惟한 일이나 없던
高層建物이 點出하는것만은 舊時容이 아니다. 물없는 내는
秋景에 加하여 郊外情趣로도 볼수 있으나 鰾인벽돌 풀은 鰾
끼와 鐵條網을 엮어막은것은 風致를 돌는 所爲가 아니다.
그럼으로 建物이 들어갈수록 自然이란 破壞는되는것을 알
겠다.

前날은 上城北屯於口로 부터 清流를 거슬러 半淸門을
타三淸洞으로 넘는 길에 兩三茅屋의 村家風情과 아울러 蒼
石老苔에 節履의 痕跡을 찾던것이 이곳을 가는 風致이었다
먼말을 素筌보고 다시금 되이며 三人台 옆터에 怡然이 거
를을 멈추었다.

台後一隅에 朱實이 方濃한 數株老柿 사이로 羊腸石道이
알파치 구비진곳에 閑寂히 달혀있는 一開門이 보이였다.
발거름을 다루어 치어다보니 여기가 前부터 憶懷는 豊土室
主人牛山金瑞俊氏의 山莊이다. 古拙한 門만 보아도 누누
지 지나는 사람은 門札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 할것이어늘

더욱 黃葉朱實에 맑은 山陰에 萬榮花紅을 일운 豊穠한맛은
아무리 보아도 紅柿山莊이라고 불려보고 싶었다.

勿論 牛山은 風流畫家임을 모른바 아니로되 보거나니 果
然 百開이 一見을 敵할수 없다.

門을 들어서니 欣然이 맞아주는 主人의 風貌와 함께 正廳
에 걸려 있는 阮堂古額인 豊土室을 對할 때에 스사로 지금
드러온 門이 斷俗門이 아닌가를 疑心하였다. 引導하는대로
豊土室에 손이 되여 正襟叙懷하고 要談一刻後에 先客의 人
事紹介를 받고 보니 이분은 東京留學時代부터 舍名을 龜閑
하던 畫家吉鎮燮氏로 一面이 如舊하다. 그리하여 두畫家와
한書家의 書畫談을 배불리 듣다가 午後五時가 稍過하여 主
人牛山의 指路로 四人이 가차 尙虛邸로 가는 途中에 最近
搬移하여온 同好裴正國氏의 門前을 지나게 되여 歷訪의 敬
意를 表하였더니 主人은 不在中이나 卜宅의 情趣만 보아도
對한듯 싶었다.

담이 낮고 물이 넓은한편가에 정갈한 數間茅屋에 고요
히窓이 달혀 있었다. 百畝庭中의 이草堂主人을 만나 보기
어려울것을 首肯하며 一開門을 나서서 牛山의 가르키는 골
이 遠景이나마 尙虛의 精舍라 한다.

지금것 恣飽한 景趣와 邂逅한 機會는 豫期치 않았든 收
穫이나 남은 遺憾은 오늘이 文人의 노다지村에 왔다가 遊

賞을 더 못하고 山陰이 멀어가니 『夕陽이 無限好나 只是近黃昏』을 恨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牛山이 가리키는 골은 내가 數十年前부터 나의 親友이던 城北葡萄園主 鶴南과 같이 사랑하여 마지않던 上城北初入에 惟一한 奇巖峭絶의 斷崖下에 平坦한 廣場이 있다. 只今 다시 보아도 이 洞府中の 景致로는 王座라 하겠다.

長垣을 앞으로 南西庭을 넘러 티이고 南向大廳을 東으로 끼는 樓閣의 「丁」字形 輪奐美는 略略없이 雅淡한 李朝砂器硯滴을 擴大한 感이다. 新築한 建物이지만 素材木의 나무는 나지 않고 새 흙내만 향기롭다. 建築의 苦心談을 들으니 古材木을 낮낮이 골라 되짜이하여 지었다 한다. 景致뿐 아니라 建物로도 首位갈 것이다. 平素 謙默家인 尙虛로도 材料鳩集과 工匠使用의 苦心談을 娓娓不倦하는 것을 보아 알겠다.

西庭에 따로 있는 一間草亭인 客室에 案内를 받고 幽賞을 未幾에 高談이 轉清하는 中 술이 나오고 珍需盛饌이나와 醉飽를 마음대로 하고 俗腸을 맑혔다. 『탐루』燈盡이라서도 洞景이 궁금하여 幽靜속을 내다보니 不易收의 景은 不易收의 幕으로 잠가 버리고 바람소리 候蟲소리만 들리더니 落葉에 발자코와 함께 문득 들어서서 이는 三叩하고 불을 알았던 草堂主人 裴正國氏가 黑夜에 應客을 찾아 來臨한 것이다.

밤은 더욱 조용하나 清談은 더욱 風發하여 案上群書와 千瓷萬畫를 次第로 鑑賞하다가 子正이 正近하여 洞口橋邊에서 三人과 三人은 作別하고 재를 넘어 불빛은 苦海로 向하였다.
(己卯十一月十日)

孤獨

安英 一

孤獨하다는 뜻은 至極히 외롭다는 말이다.

우리들의 生活에 있어 외롭다는 것 같이 또한 서글픈 일은 없을 것이다.

孤獨하다는 말은 身邊이 缺如의 缺如라는 意味로도 解釋할 수가 있을 것이요 한겨울 더 나아가 일하는 「포스트」에서 멀어지므로해서 亦是 孤獨을 느낀다는 뜻으로도 生覺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只今 孤獨을 느끼고 있다는 뜻은 憂鬱하다는 心情의 가장 消極的인 表現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그렇게 憂鬱하고 무엇이 그다지도 孤獨한지는 나 스스로도 모른다.